

## 일부 연세지역 부인들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의 분석에 대한 기초연구

### 이정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도 : Ruth G. Stewart 교수>

#### = 차례 =

- I. 서론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 B. 연구방법
  - III. 조사결과
    - A.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B. 자녀를 원하는 이유
  - IV. 고찰
  - V. 결론
  - VI. 제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I. 서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근본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풀이된 해답은 없었다. 무엇 때문에 아기를 낳느냐하는 이유는 국가나 또는 사회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다르며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복잡하여 자주 변화하고 때로는 양가성(ambivalent)을 가지고 있다<sup>1)</sup>. 그러므로 각 개인이 갖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를 원하는 이유등 내적인 심리 요인은 실제로 출산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는 이方面的 연구가 전연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방향에

서 가족계획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선에서 가족계획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계획 요원이나 가족계획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까지 반영시킨다면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원들이 가족계획에 관한 보건교육을 할 때에 이러한 관련성을 암으로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연세지역에 있어서 가임연령에 있는 부인들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의 분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서 아래의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1.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자녀를 원하는 이유를 수집, 분석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한다.

2.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설정하려 한다.

3. 사회 경제적인 계층, 교육정도에 따르는 자녀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연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희 시민아파트와 그 아파트 주위의 빙민가를 대상지역으로 선택

1) L.W. Hoffman and M.L. Hoffma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J.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1972, p.3.

하였으며, 1972년 10월 15일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부인들 중 남편과 동거중이며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을 거주 지역별로 각각 50명씩 선택하여 총 1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임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며 또한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도 없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 B.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동서인구문제연구소(East-West Population Institute)에서 개최되었던 인구학적 행동의 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토의(workshop on psychological aspect of demographic behavior)에서 발표된 호프만(Hoffman)의 논문을 기본자료로 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부인 10명과 빙민가의 부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조사표의 내용, 언어구성 등을 수정하였으며, 연구자 자신이 1972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동안 직접 가정방문하여 면접, 기록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계획의 실천정도, 인공유산의 경험회수, 자녀를 원하는 이유 등이었으며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의 두가지 질문 형식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자의 원래 의도는 개방형 질문으로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었으나 사전조사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한정된 자료밖에 수집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이유들을 기초로 하고 다른 문현을 참고로 하여 선택형 질문을 만들었으며 자녀를 원하는 이유라고 개방형 질문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라도 선택형 질문에서 서술한 자녀를 원하는 이유들은 일반적으로 응답자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며, 몇 가지의 이유들을 서술하게 한 다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택형 질문에 서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欄)에 표시하게 한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두가지 질문 형식에서 나온 이

유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III. 조사 결과

#### A.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 연령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15~19세가 1%, 20~24세가 15%, 25~29세가 31%, 30~34세가 50%, 35세가 3%로서 30~34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을 두 구룹으로 나누어 보면 30세 미만이 47%, 30세 이상이 53%이며 아파트와 빙민가 사이에는 별차이 없이 분포되어 있었다.

##### 2. 출생지

응답자의 출생지를 보면 서울이 15%, 서울을 제외한 기타 도시가 25%, 농촌이 60%로서 응답자 전체의 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었다.

##### 3. 교육수준

교육은 출산조절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가족계획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sup>2)</sup>.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4%, 국민학교 졸업이 51%로서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국민학교 졸업자이었다. 그 이외에 중학교 졸업이 27%, 고등학교 졸업이 15%, 대학교 졸업이 3%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아파트와 빙민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빙민가는 무학이 8%, 국민학교 졸업이 70%, 중학교 졸업이 20%, 고등학교 졸업이 2%이었으며 아파트는 국민학교 졸업이 32%, 중학교 졸업이 34%,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이 각각 28%, 6%로서 아파트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빙민가보다 높았다.

##### 4. 최장 거주지

결혼을 전후하여 응답자가 가장 오래 산 지역을 보면 서울이 33%, 서울을 제외한 기타 도시가 23%, 농촌이 44%이었으며 아파트와 빙민가 사이에 별 차이 없이 분포되어 있었다.

##### 5. 종교

종교의 교리가 생활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부인의 출산력은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 문현상, 한승현, 최순 : 출산력과 가족계획, 가족계획 연구원, 1972, p.34.

3) Ibid., p.35.

이 외국에서 실시된 여러 조사 결과 제시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지배적인 종교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려한 관계를 찾아내기는 힘든 일일 것이다.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무종교가 61%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1962년 경제기획원에서 서울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86.5%와 89.5%에 비해서 약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 39% 중 기독교가 15%, 천주교가 7%, 불교가 1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와 빙민가 두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 6. 결혼 연령

결혼 연령을 비교하여 보면 20세 이하에 결혼한 응답자가 14%이며 20~24세가 67%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5~29세가 19%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아파트와 빙민가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응답자의 평균 결혼 연령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7.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은 그 가정의 생활정도 및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본 조사에서 응답한 부인들의 남편의 직업을 보면 무직은 2%, 노동이 24%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중 21%가 빙민가 거주자이었다. 그외에 공무원이 14%, 사무원이 17%로서 주로 아파트 거주자이었으며 상업이 8%, 행상이 5%, 기술공이 13%, 운전사가 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타 직업으로서는 군인, 공업, 목사, 교원 등이 있었다.

#### 8. 혼존 자녀수

응답자의 혼존 자녀수는 1명에서 6명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1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26%,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34%로서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1~2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으며 3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20%, 4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13%,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7%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 혼존 자녀수는 2.4명이었으며 아파트와 빙민가도 2.4명으로서 별로 차이

가 없었다.

연령별 평균 혼존 자녀수는 30세 미만의 응답자가 1.7명, 30세 이상의 응답자는 3.1명으로 되어 있었다. 1971년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평균 혼존 자녀수는 3.2명이었고, 1972년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실시한 출산력조사에서는 3.5명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 그 숫자가 훨씬 낮은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가임연령의 부인들을 다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9. 추가희망 자녀수

응답자들의 추가희망 자녀수를 보면 한명도 더 원하지 않는 사람이 61%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1명의 자녀를 더 원하는 사람은 29%, 2명의 자녀를 더 원하는 사람은 10%이었으며 그 이상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파트 응답자는 평균 0.4명의 자녀를 더 원하였으며 빙민가 응답자는 아파트 응답자보다 더 많은 수인 0.6명의 자녀를 더 원하고 있었다.

혼존 자녀수와 추가희망 자녀수를 합하여 보면 아파트가 2.8명, 빙민가가 3.0명으로서 빙민가가 약간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부인들만을 조사하였는데도 평균 2.9명의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를 둘만 두자는 운동이 현실화되기 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10. 이상 자녀수

지금까지 조사된 일련의 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부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는 대개 3명, 4명, 5명 선에 집중되어 있었다<sup>4)</sup>.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에서 행한 출산력조사에서 3.7명으로 나타났으며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행한 조사에서는 3.6명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2명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한 응답자가 28%, 3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는 응답자가 51%로서 79%의 응답자가 2~3명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평균 이상 자녀수는 3.0명이었으며 아파트 응답자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2.9명이었고 빙민가 응답자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3.2명으로서 빙민

4) Ibid., p.69.

가의 응답자가 약간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 자녀를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평균 이상 남아수는 1.8명, 평균 이상 여아수는 1.2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1남1녀를 이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 2남1녀를 이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로서 74%의 응답자가 1남1녀, 혹은 2남1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의 응답자는 평균 2.9명, 30세 이상의 응답자는 3.1명을 이상적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 11. 가사 결정권

가사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한다가 45%, 남편 혼자서 결정한다가 46%로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2%는 응답자 자신이, 7%는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가사 결정방법과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가 상의해서 가사를 결정하는 율이 높았으며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은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12. 인공유산

한국은 아직도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인구성장의 감퇴요인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up>5)</sup> 1971년 가족계획 연구원의 출산력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부인의 26%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45%의 응답자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으며 그 횟수는 1회부터 5회까지 이르고 있었다.

30세 미만의 응답자는 평균 0.45회, 30세 이상의 응답자는 평균 1.1회의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

#### 13. 가족계획의 실천정도

전체 응답자 100명 중 29%가 현재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 실천자 29% 중 6%가 투표, 11%가 먹는 피임약, 주기 이용법이 5%, 기타 방법이 7%이었다.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71%의 응답자 중 그 이유로서는 산후 무월경이 26%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임신중인 사람이 11%, 아기를 더 낳기 원하는 사람이 16%,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사람이 7%, 이제부터 하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6%이었으며 기타 이유로서 부작용 염려 때문에 못한다, 적당한 방법이 없다, 전연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었다.

#### B. 자녀를 원하는 이유

##### 1.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녀를 원하는 이유

“자녀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한가지 이유만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가계 계승을 위해 자녀를 낳는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100명 중 31명으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노후에 의탁한다는 것으로서 22명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이유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계계승의 이유와 노후의 탁의 이유 이외에 자녀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사람과 기르는 재미로 자녀를 낳는다는 사람이 각각 8명이었으며 자녀가 있어야만 가정이 화목하다, 자녀는 생의 보람이다,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의 의무이다라는 사람이 각각 10명, 17명, 4명이 있다.

자녀를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계계승이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아파트보다 빙민가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이유들은 두 집단에 별차이 없이 분포되어 있었다.

##### 2. 선택형 질문에 의한 자녀를 원하는 이유

선택형 질문에서 각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한가지 이유만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개방형 질문에서 보다 많은 수인 43명이 가계계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의 의무라고 한 사람으로서 13명이었다. 그 이외에 노후에 의탁할 수 있다가 12명, 자녀는 생의 보람이다가 11명이었으며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기르는 재미로 자녀를 낳는다,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다가 각각 12명, 5명, 3명이었다.

본 연구자가 위의 이유들을 분류할 때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의 의무라고 하는 항목 속에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의 도리이다, 자녀를 낳는

5) Walter B. Watson: 한국 가족계획사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제문제, 미국 인구협회 한국사무소, 19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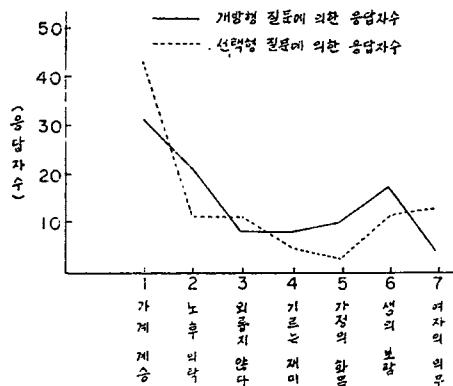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이유들을 같이 포함시켰으며 또한 자녀는 생의 보람이다 라는 항목 속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 창조의 기쁨을 주는다라는 이유를 같이 포함시켰다.

위의 두가지 질문형식으로 얻어진 이유들을 수표와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서 응답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응답자	개방형 질문에 의한 응답수	선택형 질문에 의한 응답수
1. 가계계승	31명	43명	
2. 노후의탁	22	12	
3. 외롭지 않다	8	12	
4. 기르는 재미	8	5	
5. 가정의화목	10	3	
6. 생의보람	17	11	
7. 여자의의무	4	13	
합계	100명	99명	

$\chi^2 = 16.194$ . d.f. = 6  $p < 0.05$ . \* 1명은 무응답.



도 1.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서 응답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가지 질문형식에 의하여 얻어진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분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두가지 질문형식으로 얻어진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일치와 불일치의 비교

각 응답자가 개방형 질문에서 지적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선택형 질문에서 지적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가를 개방형

질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두가지 질문에서 이유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99명 중 30명 이었으며 2배에 가까운 69명의 응답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계계승이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 응답자 31명 중 21명이 두가지 질문에서 일치하고 있었으며 노후의탁이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 응답자 21명 중 5명만이 일치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자녀는 생의 보람이다 라고 지적한 응답자 중 각각 2명만이 일치하고 있었다. 이것을 수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개방형과 선택형 질문의 일치율과 불일치율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개방형 질문에 의한 응답수(명)	일치율(명)	불일치율(명)
1. 가계계승	31	21	10
2. 노후의탁	21	5	16
3. 외롭지 않다	8	2	6
4. 기르는 재미	8	0	8
5. 가정의화목	10	0	10
6. 생의보람	17	2	15
7. 여자의의무	4	0	4
합계	99	30	69

※ 개방형 질문을 기준으로 함.

### 4. 응답자의 연령과 자녀를 갖는 이유의 비교

응답자의 연령을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의 두 구룹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에서 나타난 이유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노후의탁은 30세 이상에서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택형에서 나타난 이유와 연령과의 비교에서는 가계계승의 이유가 30세 이상의 응답자에게서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연령구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두가지 질문형식에서 얻어진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같은 연령 구룹끼리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 5. 응답자의 교육정도와 자녀를 갖는 이유의 비교

응답자의 교육정도와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

녀를 갖는 이유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며 선택형 질문에 의한 이유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녀를 갖는 것이 생의 보람이 된다는 이유에서는 초등교육만을 받은 사람보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두 가지 질문형식에 의한 이유를 같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끼리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후에 의탁한다는 이유를 다시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 “자녀를 기르는 이유중에 하나가 노후에 자녀들이 당신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47%,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그 중 16%만이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노후에 의탁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교육별로 본 “당신이 자녀를 기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에 자녀들이 당신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수

응답자수 교育별	“예”라고 대답한 수	“아니오”라고 대답한 수	합계
초등교육이하	26 (47%)	29 (53%)	55 (100%)
중등교육이상	7 (16%)	38 (84%)	45 (100%)
합계	33	67	100

$\chi^2=8.5$ . d.f.=1.  $p<0.05$ .

#### 6. 혈족 자녀수와 자녀를 갖는 이유의 비교

응답자들의 혈족 자녀수를 2자녀 미만과 2자녀 이상의 두 구룹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에서 얻어진 이유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선택형 질문에서 나타난 이유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두 가지 질문형식에서 나타난 이유를 같은 수의 자녀를 가진 구룹끼리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총 응답자 100명 중 아들을 한명 이상 가진 사람은 73명, 아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27명이었으며 이들 두 구룹간에 자녀를 갖는 가장 중

요한 이유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차이는 없었다.

#### 7. 남아선호

“당신이 자녀를 하나만 낳아야 한다면 아들을 낳겠습니까?, 딸을 낳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총 응답자 100명 중 96명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블과 4명만이 딸을 낳겠다고 답하였다.

아들을 낳겠다고 대답한 응답자 96명 중 68명이 가계계승의 이유를 들고 있었으며 노후의 탁의 이유는 12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 딸은 성장하면 출가외인이 되어 버리며 아들은 같이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사람이 9명이었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유는 노후의 탁의 이유와 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아들은 어쩐지 듣는하기 때문에 딸보다 좋다고 한 사람이 6명이었다. 어쩐지 듣는하다는 이유도 같이 살 수 있다. 노후에 의탁할 수 있다는 이유와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남아선호의 이유는 가계계승과 노후의 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딸을 원하는 이유로서는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를 이해해 준다, 아들보다 기르기가 재미있다, 양육이 수월하다 등을 들고 있었다.

## IV. 고찰

자녀에 대한 가치는 사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또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며 같은 계층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sup>6)</sup>.

Hoffman<sup>7)</sup>은 그의 연구에서 자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1) 자녀를 낳아야만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 2) 자녀는 가계를 계승하며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의 일부분이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
- 3)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의 사회도덕적 행위

6) James T. Fawcett: Psychology and Population,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70. p.110.

7) L.W. Hoffman and M.L. Hoffma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J.T. Fawcett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 1972, p.5.

이다.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며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임무이다.

- 4)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회의 제1차 집단인 가족을 이를 수 있고 또한 생의 동반자로서 외롭지 않으며 부부 사이를 연결하여 결혼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 준다.
- 5) 자녀를 갖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또한 자녀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자녀는 행복의 원천이며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 6) 자녀를 기르면서 창조의 기쁨, 자신감, 완성감을 갖는다.
- 7) 자녀를 낳음으로서 여성은 그 집안에서의 위치가 인정되며 주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대하여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형태의 힘을 갖게 된다.
- 8) 자녀들이 재질이 다분하거나 성장해서 성공을 하면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 9) 자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노후에 의탁할 수 있다.

여성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및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발달된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의 고독과 소외감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sup>8)</sup> Hoffman이 분류한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어느 나라에서나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의 변천과 함께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다양해지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치라는 어휘는 자녀를 원하는 이유, 혹은 자녀의 필요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녀에 대한 가치 기준은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준다<sup>9)</sup>.

본 조사에서 나타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령, 교육정도, 현존 자녀수에 상관없이 가계계승과 노후의 턱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가계계승과 조상 숭배의 관념으로서 남아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왔던 이 조사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강한 남아선호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국 전체의 부인들 중에서 약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 아들없이 딸만 낳을 경우에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린애를 낳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부인들 중 반수 이상이 비록 결혼 초에 미리 어린애를 몇 명만 낳겠다고 작정하고 가족계획을 실천하더라도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한 개인의 남아선호의 비중에 따라 그 개인의 가족계획 실천행동은 크게 다를 것이다<sup>10)</sup>.

또한 자녀는 생의 보람이라든가 기르는 재미라든가 하는 것은 남아나 여아나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을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 사람들도 후에 자녀를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면 결국 남아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응답자 전체가 남아선호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계계승이나 노후의 턱인 사람은 높은 출산력을 나타낼 것이고 가정의 화목, 기르는 재미, 자녀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사람은 낮은 출산력을 보일 것이며<sup>11)</sup>, 이러한 것은 좀 더 현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가계계승, 노후의 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 남아선호의 가치관을 타파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어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L.W. Hoffman and F. Wyatt: Social change and Motivations for having larger familie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errill Palmer Quarterly, 1960, 6 : 235-244.

9) J.T. Fawcett: op. cit., p.114.

10) 이종승: 남아선호와 가족계획, 연구노우트, 행동과학연구소, 제1권 제7호, 1972.

11) J.T. Fawcett, op. cit., p.64.

두가지 질문형식에서 가계계승의 이유가 가장 많은 일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자녀를 갖는 이유 중 가계계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기르는 재미, 가정의 화목 등의 이유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별로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선택형의 질문에서 읽고 그러한 이유들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가지 질문형식에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응답자들의 태도가 확고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선호의 이유에 있어서 다른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동력으로서 남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일부 연세지역에 있어서 가임연령에 있는 부인들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의 분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사회 경제적인 계층과 교육정도에 따르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력 태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1972년 10월 15일 현재 연희시민아파트와 그 아파트 주의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부인들 중 남편과 동거중이며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을 거주지역별로 각각 50명씩 선택하여 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계획의 실천정도, 인공유산의 경험회수, 자녀를 원하는 이유등이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의 두 형식으로 나누어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 자신이 1972년 10월 10일부터 25일 까지 15일간 직접 가정방문하여 면접 기록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결론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1) 자녀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서 가계계승, 노후의 탁, 생의 보람, 가정의 화목, 기르는 재미, 외롭지 않다, 여자의 의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에서 얻어진 숫자는 그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가정할 수 있다.

(1) 질문의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면접자가 어떤 질문을 하려 하면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게 될까 두려워서 면접을 회피하려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답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 고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보다 선택형 질문이 더욱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2) 응답자들의 의사표시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3) 응답자들이 성장해온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활발한 의사표시의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을 수 있다.

2) 각 응답자가 개방형 질문에서 지적한 자녀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선택형 질문에서 지적한 이유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를 개방형 질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계계승의 이유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가계계승의 관념이 가장 분명하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연령, 교육정도, 혼촌 자녀수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 VI. 제 언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질문의 형식 : 질문의 형식에 있어서 스케일(scale)을 마련함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를 원하는 이유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집하기 위해 문장완성법(sentence completion)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표본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남자와 여자, 도시와 농촌, 교육정도가 아주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자녀를 여러명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지어 조사하

지 못하였지만 자녀를 원하는 이유(wanting children)와 실제로 자녀를 갖는 이유(having children)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관한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Barnett, L.D.: "Population growth as an abstract-Perceived problem," Demography, Vol. 5, No. 2, pp. 53~60, 1970.  
Chung, Bom Mo et 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KIRBS, 1972.  
Dow, T.E.: "Family size and family planning in Nay-irobi", Demography, 4 : 780—797, 1967.  
Fawcett James T.: Psychology and population,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70.  
Heisell, D.J.: "Attitudes and practice of conception

in Kenya," Demography, 5 : 632—641, 1968.  
Hoffman, L.W. and Hoffman, M.L.: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J.T. Fawcett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1972.  
Maccoby, E.E.: "Woman's Intellect". The Potential of woman, New York, McGraw-Hill, 1963.  
Poffenberger, T.: Motivational aspects of resistance to family planning in an Indian village", Demography 5 : 757~766, 1968.  
권이혁 : 도시 영세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1967.  
문현상, 한승현, 최순, 출산력과 가족계획, 가족계획 연구원, 1972.  
양재모 외 : 한국 농촌사회와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6.  
양재모 : "농촌에서의 출산력과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내과학회 잡지, 제7권 제11호, 1964.

#### = Abstract =

### A Study of the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Among Women Under Thirty Five Years of Age Residing in the Yonsei Community Health Area

Lee, Chung Sook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ince there is nothing in the literature regarding how Koreans value their children,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attempting to (1) generate ideas as to why women of childbearing age want children and (2) discover aspec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fertility behavior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 and level of education.

Fifty women from the Yonhee A Citizen's Apartment and 50 women from the slum area surrounding the Yonhee Apartment were interviewed by the investigator during the period of October 10 to October 25, 1972. All of the women interviewed were under 35 years of age and had more than one chil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status of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s and the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An open ended question followed by a forced choice question was the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Half of all the respondents were between 30 and 34 years of age.
2. Four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no schooling, 51 percent had graduated from

primary school, and 45 percent were educated beyond middle school.

3.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given by the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1) carrying on the family name, (2) old age security, (3) value of life, (4) fun of rearing children, (5) avoidance of loneliness, (6) responsibility of women.
  4. The number of consistent answers between the open ended and forced choice questions regarding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30 women among the total respondents gave consistent answers. Carrying on the family name was the category in which there was the highest rate of consistency.
  5. The reasons for wanting childre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ge, educational level,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for all of the respondents.
  6. In response to the question "If you want to have only one child, which sex would you prefer?" 96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select a son.
  7. Major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to differentiate. (1) between reasons women want children and reasons women have children and (2) between reasons men want children and reasons women want children.
-